'진화하는 공룡' 중국농업 현장을 가다

⑩농산물 수출 기수 '용두(龍頭)기업'

# "농민은 생산만…가공·유통·수출 국가에 맡겨라"

〈용두기업〉

*중국 농산물 수출경쟁력의 성장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천혜의 자연조건과 저임금을 무기로한 저렴한 농산물 가격이 중국 수출농산물의 경쟁력 원천이기도 하지만 단기간에 경쟁력을 높인 것은 농산물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용두기업'(龍頭企業)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용두기업'은 중국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중핵 기능을 담당하며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기수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생산농민들이 용두기업에 납품되는 채소를 다듬고 있다.

## 中 정부, 각종 세제·시설자금 등 지원 수출 경쟁력 극대화

## 대부분 小기업, 투자 적고 기술 낙후 파급효과 '아직은…'

중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 '11.5차 계획'에서 생산과 가공이 결합된 농업산업화 경영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산업화 경영이란 기초가 튼튼하고 특성과 장래성이 있는 용두기업을 선정해 국가 중점지원 대상으로 삼고 기지건설, 원료구매, 설비도입 및 농산물 수출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용두기업은 농가와의 합리적인 이익연결 체제를 구축하여 농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농업의 산업화의 핵심은 '용두기업(龍頭企業)'으로 생산·가공·유통의 중핵이 되는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4분의 1의 농가가 이러한 중핵기업과 연계를 맺고 있다. 중국에서는 농정의 중점을 농업구조조정과 농민수입증대에 두고 있다. 그를 위한 주요 시책으로서 농업의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용두기업'이다. '용두기업'이란 가공업, 유통시장, 농민전업협회 등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중핵이 되는 조직을 가리킨다.

### 상하이 용두기업, 年 매출 1억위안

뿐만 아니라 용두기업은 수출국의 농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신속하게 생산농가에 전달하고 있으며, 생산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선별, 저장, 가공, 포장이 구비된 선진화된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신속한 물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용두기업에게 세제지원과 각종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중국 수출농산물 경쟁력을 높이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고, 용두기업과 계약재배를 통해 가격을 조절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용두기업은 농가가 생산한 고품질 농산물을 전량 구매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선별, 포장이 용이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른바 생산은 농민이, 수출은 기업이 담당하여 상호 공생하는 시스템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최대의 농산물 소비도시인 상하이시의 농업산업화를 예를들면 1998년에 시작되어 현재 300개의 산업화조직이 있다. 이들의 연간매출액은 약 150억 위안이고, 농민 7만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대기업으로는 '상하이우유집단공사'(상하이 시장의 3분의 1을 공급), '상하이고용(高榕)식품유한공사' 등이 있다. 고용(高榕)은 정해진 단위에 따라 채소를 생산·가공, 등급이 높은 것은 일본에 수출하고, 보통 등급은 국내 슈퍼마켓에 출하하고 있다.

'철새방식'이라 하여 계절에 따라 북쪽에 야채가 없는 시기에는 남쪽에서, 또한 그 역(逆)의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계약농가는 상하이 뿐아니라, 화난(華南), 푸젠(福建), 산둥(山東) 등에도 확산되어, 노동력으로는 약 5만 여 명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경영자인 양용핑(楊永平)씨는 푸젠출신이며, 처음에는 마을 차원에서 시작한 민영기업이었으나, 지금은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밖에 국유기업으로는 '농공상 슈퍼집단공사'가 있다. 종전의 시(市) 농산국(공상집단공사)의 산하기업으로, 상하이 주변 17곳의 농장에게 재배하도록해 쌀과 채소를 일괄적으로 수확하고, 전국 500개 곳(그 중 상하이에는 300곳)의 농공상 슈퍼마켓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상하이에 있는 용두기업 중 시(市)가 인정한 기업은 16개사, 국가가 인정한 것은 3개사이며, 이들 19개사는 각각 연간매출 1억 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용두기업이 직면한 과제로는 투자가 적고 대기업이 적으며 대부분 소기업이라 파급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 농산물 가공기술은 일본에 비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과 같은 조직이 없으며 중개조직의 힘이 아직 미미한 점 등 이상 3가지로 요약된다. 중국은 일본의 농협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업 육성을 위해 재정·세제면에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의 용두기업은 제도의 시행이 일천해 아직 그 파급효과가 낮다는 점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지원 또한 다양하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신장세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對日 시장 점유율 6.4%로 급락

한편 우리 농산물의 대일 시장 점유율은 정반대로 '90년대 중반 25%에서 최근 6.4%까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대일 농산물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의 주요 농산물 수출 시장인 일본에서 한국산 농산물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중국정부의 강력한 농산물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자본주의 시스템을 접목한 농가의 생산성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농산물 주요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사진 조 창 완
〈경제학박사
광주전남발전硏 연구위원
cwcho@gjdi.re.kr〉

■ 용두기업의 3가지 유형

①기업에 의한 농산물 가공

②발주서 통한 농가와 계약재배

③농가가 공동 생산·수확·판매

일반적으로 용두기업(선두기업)이란 말은 과학적 개념은 아니다. 농촌지역에 자리잡아 마치 용머리처럼 현지의 농업발전을 위해 주로 가공을 위주로하는 규모를 갖춘 기업을 의미한다. 중국에는 농촌공업화 촉진을 위해 향진기업(鄕鎭企業)을 육성하고 있는데 향진기업은 농민출신의 기업가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의 가공기업 뿐만 아니라 기계가공, 비닐가공 등의 기업까지 포함하며 향진기업중에서 약 20%가 용두기업에 속하고 있다. 중국정부에서는 2004년 현재 용두기업 중에서 농민과의 관계, 유통조직, 생산능력, 고정자산, 영향력, 이윤, 지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현에 1개정도 전국에 약 190개를 지정하여 우대하고 있다.

### 가공 위주, 현지서 농업발전 선도

### 향진 기업 20%·전국 190개 지정

중국의 용두기업은 다음 3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는 기업에 의한 농산물가공 형태, 둘째는 발주서(정단(定單)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수확 시에 언제,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를 계약하는 형태, 셋째는 농가가 그룹을 형성해 공동으로 생산, 수확, 판매를 하는 형태 등 3가지이다.

용두기업은 생산단계부터 수출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조사를 토대로 선호도가 높은 품종과 품목을 선택하고, 이를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에 필요한 품종은 모두 용두기업이 구매하고 이를 보급함은 물론이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농업기술개발구 및 지역 대학과 연계를 맺어 수시로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 기술지도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용두기업이 부담하고 생산시기별로 농가와 협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용두기업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용두기업은 최상의 농축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며 중국 농업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켜 왔다. 용두기업 진열대에 선보인 육류제품.